

# 이규성 “‘동백꽃’은 인생작”

### 드라마 초중반까지 존재감 ‘미미’ 각고의 노력으로 캐릭터 섬세히 빚어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녹여 내며 최근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극본 임상춘, 연출 차영훈 강민경, 이하 ‘동백꽃’)이 쫓기던 긴장감으로 휩싸일 때는 바로 연쇄 살인마 까불이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훈훈함으로 넘치는 ‘동백꽃’은 까불이만 등장하면 단숨에 스릴러 돌변했다.

그렇기에 주인공들의 해피 엔딩을 방해하는 ‘까불이 찾기’에 시청자들의 신경이 집중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밝혀진 그 정체는 눈에 띄지 않던 조연 ‘철물점 흥식’이었다.

드라마의 초중반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미미했던 흥식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의심을 샀고, 후에 사람들의 호의를 ‘동장’ 혹은 ‘무시’로 받아들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라는 점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배우 이규성은 소심한 흥식 이부터 분노를 폭발시키는 까불이까지 진폭이 큰 감정을 연기로 풀어내야 하는 이 까다로운 캐릭터에 겁 없이 도전했다.

그는 자신만의 소설을 써 흥식이 괴물이 된 이유를 분석하고, 대사의 톤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연기를 할 때 장면 속 디테일한 설정 등을 고민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캐릭터를 섬세하게 빚어냈다. 덕분에 종영 때까지 까불이의 정체에 혼란을 주려는 ‘동백꽃’의 의도는 통했고, 마지막에 반전을 선사할 수 있었다.

-본인이 연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흥식이 용식이와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다. 특히 흥식이 용식에게 애원을 하면서 팔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용식이 그 손을 툭 툭 치고 놓는다. 이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다. 연기를 하며 순간 몸이 나가 하늘이 형 팔을 잡았는데, 그때 흥식의 행동은 ‘용식이 속아야 하는데’라는 절실함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이어 하늘이 형이 내 손을 툭툭 치는 순간 ‘내 감정이 통했다’는 느낌이 왔다. 서로 소통이 됐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베테랑 연기자와 호흡은 어땠는지. 배울 점도 많았겠다.

▶공효진 선배님부터 시작해 이정은 선배님, 하늘이 형, ‘용벤저스’ 누나들 전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대사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받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다 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모든 순간이 배움이였다. 다정이 많으시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 않은 선배님들이 없었다. 또 내가 필수 다음 막내라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다.(웃음)

-많은 시청자들에게 ‘동백꽃 필 무렵’이 인생 드라마로 남았다. 본인에게도 이 드라마가 인생작인가.

▶내게는 진작에 인생작이었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대중이 이규성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해 준 작품이라 너무 감사하다.

-연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

▶원래 고1 때부터 배우를 꿈꿨는데, 당시에는 부모님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이 고3 때 목표 수능 성적을 거두면 연기를 하게 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수능을 보고 바로 연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때 입시학원에 등록을 해주셨는데 서울예대 1차 시험에 붙은 거다. 이후에는 떨어졌지만, 그걸 보고 부모님이 재수를 권하셔서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이듬해에 연기 선생님의 학교인 경기대에 입학하게 됐다. 입학 후에는 교수님이 내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쉬지 않고 공연을 했다. 인복이 좋았다.

-앞으로 활동 계획과 목표가 궁금하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 열심히 오디션, 미팅을 보고 있다.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흥식이로 어두운 모습이 부각됐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는 희극이다. 앞으로 드라마를 한다면 밝은 캐릭터도 연기해보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뉴스1

# 박경 ‘사재기 의혹’ 실명 거론 논란, 결국 법정 가나

### 양측 대응 예고... “현 음원 차트 루머 명백히 밝혀지길”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

일부 가수들에 대한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가수들의 강경 대응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입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한 게시물로 곧바로 논란을 낳았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고 박경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당일 “박경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인의 생각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여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경이 실명을 거론했던 가수들은 지난 25일 일제히 “사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박경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론은 양극화됐다. 박경의 실명 거론이 경솔했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음원 차트의 사재기 의혹에 대한 저격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경의 입장을 지지하는 팬들은 박경이 2016년 발표한 곡 ‘자격지심’을 스트리밍, 3년만에 음원이 역주행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이후 박경은 이날 오후 방송된 자신이 DJ를 맡은 MBC라디오 FM4U ‘꿈꾸는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주말동안 격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꿈꾸라’의 DJ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추가 언급 없이 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박경의 소속사 세븐시즈는 26일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박경이 SNS를 통해 언급된 발언으로 인해 실명이 언급된 아티스트분들의 법적 대응 입장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며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박경 측은 “본 건 이유와 별개로 당사는 박경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번 공식입장을 통해 말씀 드렸듯이 본 건으로 인해 실명이 언급된 분들 및 해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고 덧붙였

다. 더불어 “당사는 박경의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만 본 건을 계기로,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현 가요계 음원 차트 상황에 대한 루머가 명확히 밝혀질 바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영화 ‘겨울왕국2’ 초고속 흥행 기록

### 5일째 479만명 ↑...평일도 하루 35만명 ↑ 동원

영화 ‘겨울왕국2’(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가 개봉 5일 만에 479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지난 25일 하루 35만 3689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479만 1670명이다.

이로써 ‘겨울왕국2’는 5일 만에 479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평일 하루에도 35만명 이상을 동원한 초고속 기록

이다.

‘겨울왕국2’는 예상처럼 개봉과 동시에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중이다. 전작인 ‘겨울왕국’은 지난 2014년 개봉해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최초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전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관객을 거둔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2편 역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겨울왕국2’의 뒤는 ‘블랙머니’가 이었다. ‘블랙머니’는 같은 날 5만9515명을 동원해 2위를



차지했고, 누적관객수는 187만 6928명을 동원했다.

뉴스1

#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겨울왕국2
- 2관 겨울왕국2
- 3관 겨울왕국2
- 4관 겨울왕국2
- 5관 겨울왕국2
- 6관 겨울왕국2
- 7관 겨울왕국2
- 8관 블랙머니
- 9관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신의 한 수:귀수편, 앤젤 해즈 폴른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 2관 겨울왕국2, 엔젤 해즈 폴른, 82년생 김지영
- 3관 겨울왕국2
- 4관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 5관 겨울왕국2, 신의 한 수:귀수편
- 6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